사무직 여성 91년 가을 통권 6호

<아직도 이런 일이>

28세 정년이라니요, 평생 동안 일할 겁니다!

이광전 (중앙대학교 해고자)

저는 1982년 중앙대학교에 입사하여 91년 8월 31일 해임된 이광전입니다.

입사할 당시만 해도 동일한 조건 및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직 여직원이 서기보와 조무원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입사 후 업무를 익혀갈 즈음 일은 똑같이 하면서 월급, 연금, 회의참석, 신분상의 차이 등 모든 것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능률은 오르지 않고 직원이라는 소속감도 별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여직원끼리도 직급상으로 서기보와 조무원으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입사 후 3, 4년이 지났을 때 조무원 입사 당시에는 없었던 25세 정년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학교측에서 공문을 각 부서에 보내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조건에서 차별되어진 것으로도 부족하여 25세 정년이라는 규정을 만든 것이 너무나 부당하여 조무원에 해당되는 32명의 여직원끼리 모여 시정을 요구하는 연명부에 날인하여 총무처장에게 항의를 할 즈음 1988년 7월 중앙대학교에도 노동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체결된 단체협약

우리는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우리 문제의 해결을 노동조합에 위임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계속되자 8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5세 정년을 28세로 하면서 단서조항에 서기보를 충원할 때에는 재직 중인 조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안은 3년 안에 조무원 전원을 서기보로 흡수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체결된 것입니다.

32명을 한꺼번에 서기보로 하기에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기에 3년을 기다리는 것은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 12명의 서기보 자리가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무원 중에서 단 1명도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에는 촉탁이라는 임시직으로 충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노조에 항의하였고 노조에서도 우리의 문제로 총무처와 계속 상의를 했지만 학교에서는 핑계만 내세우고 3년 동안에 서기보로 승급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1991년 4월에 단체협약을 갱신할 때에도 우리는 너무나 무지해서 설마 학교에서 28세대로 해임을 하지 않겠지, 그 안에 어떤 좋은 해결책이 나오겠지 하면서 안일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5, 6월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노조만 믿기에는 학교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28세 정년 당사자 4명은 7월 초부터 총무처장, 부총장, 총장을 계속 만나면서 시정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지만 관계자들은 잘못된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사립학교법상 인사권이 재단으로 넘어가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일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년을 32세까지 연장하자는 절충안도 내놓았지만 그 절충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4명을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하였지만 1, 2명은 몰라도 4명은 어렵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4명은 설마 설마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촉탁도 어렵다고 그러니 너무나 절망하여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무가내로 나오는 학교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계속되면서 너무나 억울하여 이런 식으로 순순히 부당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생각을 할 때 학교의 한 여직원이 여성민우회를 소개하면서 꼭 찾아가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큰 기대를 하고 우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후배와 함께 여성민우회를 찾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기는 늦었지만 여성민우회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방법을 알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정서를 학교측과 노동부 관악사무소에 접수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들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성민우회의 도움으로 한겨레신문에 연락이 되어 우리의 부당해고가 기사화되기 시작한 이후 대학의 학보사와 신문 방송 등에 여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부 질의서에 대한 회신에서도 남녀 성차별과 28세 조기정년제는 위법이라고 하였고, 정무제2장관실의 진정서에 대한 회신에서도 위법사항이니 관계기관에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발송하겠다는 내용이 회신이 오기도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우리의 부당해고가 중앙대학교 학보에도 계속 나오고 총학생회는 홍보와 함께 중앙대 학우를 대상으로 서명 작업에 들어갔고 모금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직급의 후배들도 활동비를 걷어주었습니다. 서기, 서기보 여직원들도 연명부에 날인하여 우리의 부당성에 동조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진전되어 가는 것 같아 여기에 이르기까지 뒤에서 도와주신 여러분들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학교에서 무엇인가 반응이 나올 법도 한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빠른 결과를 바랐는지 모르겠지만 길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면서 사회정의와 진리를 교육하는 학교라는 곳에서 막무가내로 “대법원에서 만나자”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여자의 평생직장은 사랑하는 일터

앞으로 거쳐야 할 험난한 고난의 길은 남아 있지만 우리 4명이 있는 힘을 다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여자의 평생직장은 결혼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일터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